



군산에 밀린 흑산 흥어, 명성 되찾기 고심

군산, 작년 위판량 45% 전국 1위
기후 변화·낚시 방법 등 원인
정부 총허용어획량 규제도 한 몫
신안군, 정부에 제도 개선 건의

기후 변화, 낚시 방법, 정부의 총허용어획량(TAC) 규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흥어의 주산지가 군산으로 바뀌고 있다. 흑산도를 비롯해 흥어의 본고장이라고 불리는 신안과 목포가 지역 대표 수산물인 흥어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심 중이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정부의 총허용어획량 사도별 배정 물량은 전북이 1365t으로 가장 많고 전남(817t), 충남(755t), 인천(310t), 경남(93t), 부산(97t), 제주(21t)

순이다. 해양수산부의 유보 물량(210t)까지 더해 모두 3668t이다.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배정 물량(3668t)의 75.6%밖에 채우지 못해 올해 전체 물량은 그대로 유지한 채 어획량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정한 것이다.

이 같은 배정 물량에 따라 지난해 전북 군산의 흥어 위판량이 1489t으로 전국 3303t의 45.1%에 달했다.

흑산도 흥어로 유명한 전남의 639t보다 2배 이상 많은 양이다. 군산의 흥어 위판량은 2017년 4t, 2018년 36t에 불과했으나 2019년 224t, 2020년 637t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뒤 2021년 1417t으로 전국 1위 자리에 올랐다. 전북 군산에서 흥어가 많이 잡히는 가장 큰 이유는 수온 상승으로 인한 흥어 서식지의 이동이다.

여기에 전남에서는 주로 미끼가 없는 주낙 방식으로 흥어를 어획하는 반면, 군산 등에서는 자망

등 촘촘한 그물을 사용하는 변형 어구를 사용하거나 미끼가 있는 낚시 방식으로 잡아 어획량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 전남 어민들의 주장이다.

신안군은 지난 2009년 도입된 흥어 총허용어획량 제도에 따라 흑산과 인접 해역의 경우 흥어 어획량이 제한된 반면 군산은 지난해까지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흥어잡이 어선 수가 대폭 늘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러한 어선 규모와 기존 어획량을 인정해 총허용어획량을 정하면서 규모가 커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신안군은 이같은 점을 들어 정부에 단속 강화를 촉구하는 한편, 제도 개선을 건의한 상태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온 상승으로 인한 어족 자원 변화에 대해서도 관련 용역을 검토 중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지역 대표 명품 수산물인 신안 흑산 흥어의 명성을 확고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긴급돌봄 적극행정 '방문목욕' 전국으로 확산

효과성 입증돼 복지부 사업 추가
이달부터 충북·전북·경남서 추진

전남도가 긴급돌봄 지원사업 중 하나로 실시한 농어촌지역 특성에 맞는 방문목욕 사업을 정부가 받아들여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령화, 인구 감소 등에 직면하면서 적극 행정에 나서고 있는 전남도의 정책을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코로나 대유행에 따라 한시적으로 추진했던 긴급돌봄 사업이 올 7월부터 신규 사업으로 정착됐다.

긴급돌봄은 질병, 부상, 주돌봄자의 부재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등 성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요양보호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이 가정에 방문해 식사도움, 옷 갈아입히기, 청소, 세탁, 외출 시 동행 등을 제공해 일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한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 72시간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모든 누구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의 경우 요금 면제되며, 120% 초과부터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된다.

하지만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긴급돌봄은 목욕차량을 이용한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농어촌 지역의 형량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사업 시행 초기부터 복지부에 방문목욕 서비스 추가 요청을 적극 건의했다.

특히 지난해 도 자체 예산을 들여 긴급돌봄 대상 자에게 70여 건의 방문목욕 서비스를 실시, 이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또다시 방문목욕 서비스 사업 추가를 요청한 결과 복지부가 이를 반영, 8월부터 전남도를 비롯한 충북, 전북, 경남에서 함께 추진하게 됐다.

8월부터 추진하는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 2인이 방문해 목욕 장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해 목욕 준비부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 모든 서비스가 제공된다.

전남도는 7월부터 정식 시행된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78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5일 이내 이용 자격 확인을 거친 후 전남도사회서비스원이나 민간 돌봄 제공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

日, 한국 사도광산 동원 조선인 명부 요청 계속 거부

추도식 개최 약속했지만 추모대상자 정보조차 공유하지 않아

일본이 일제 강점기 사도광산 강제노동에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 명부를 제공해달라는 한국 요구를 계속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한국의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추도식을 개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추모대상자 정보조차 공유하지 않는 셈이다.

7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일본과 사도광산 등재 협상 등 계기로 니카타현 현립문서관에 있는 '반도 노무자 명부'를 제공하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관철되지 못하고 있다. 이 명부는 지난해 4월 그 존재가 드러났는데, 정부뿐 아니라 시민단체도 꾸준히 일본 측에

명부 공개를 촉구했지만, 여전히 일본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이 없는 상태다.

명부는 1983년 니카타현 지역 역사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촬영돼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남아 있다. 명부에 기록된 조선인 노동자는 수백명 규모로 알려졌다.

일본은 아니지만 사도광산에 동원된 조선인에 대한 공식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명부 소유권은 사도광산을 운영했던 기업 미쓰비시에게 있지만, 제공 여부는 일본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태도는 그리 협조적이지 않다는 후문이다. 일각에서는 그 배경으로 유족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일본은 강제노동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도광산 인근에 문을 연 조선인 노동자 전시시설에 '강제'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담아야 한다는 한국의 요구도 거부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반도 노무자 명부'를 제공해달라고 계속 촉구할 계획이다. 원위실 국회의장도 전날 입장문에서 일본에 해당 명부 제공을 요청하기 바란다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현재 사도광산 조선인 노동자 관련 자료로는 연초 배급명부(490여명) 등이 있지만, 니카타현 현립문서관에 보관된 조선인 노동자 명부가 있으면 이와 비교해 보다 정확한 명단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수요 급증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올여름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조짐을 보면서 편의점에서 자가진단키트를 찾는 수요도 크게 늘었다. 사진은 7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진열된 자가진단키트. /연합뉴스

전용태·서창완 등 근대5종 나홀만의 열전 탁구 여자단체전 사상 첫 결승 진출 도전



2024 파리 올림픽 근대5종 경기가 8일 오후 6시 노스 파리 아레나에서 열리는 남자 개인전 펜싱 랭킹라운드를 시작으로 나홀만의 열전에 들어간다. 근대5종은 한 선수가 펜싱, 수영, 승마, 레이저런(육상+사격)을 모두 치르는 경기다.

한국에서는 전용태(광주시청)와 영암 출신 서창완(국군체육부대)이 남자부에, 성승민(한국체대)과 김선우(경기도청)가 여자부 경기에 출전한다.

도쿄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올림픽 근대5종에서 입성한 한국 최초의 선수가 된 '한국 근대5종 간판' 전용태는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2관왕에도 올랐다.

이들은 이번 올림픽을 한달여 앞두고 최근 중국 정저우에서 열린 2024 국제근대5종연맹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다수의 메달을 획득하며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여자 탁구는 여자 단체전 사상 첫 결승 진출을 위한 경기를 펼친다.

신유빈·이은혜(이상 대한항공), 전지희(미래에셋증권)로 구성된 여자 탁구대표팀은 오후 10시 사우스 파리 아레나에서 준결승을 치른다.

한국 여자 탁구는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만 단체전 동메달을 땀다. 2012 런던 올림픽에서는 4위에 올랐지만, 2016 리우 올림픽과 2020 도쿄 올림



광주시청 전용태, 영암 출신 서창완

픽에서는 모두 8강 탈락했다.

12년 만에 단체전 4강에 진출한 여자 탁구가 결승에 진출하며 메달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스포츠클라이밍 콤비인(볼더링+리드)에 출전한 서재현(서울시청)은 이날 오후 5시 여자 준결선 리드 경기를 치른다.

앞서 서재현은 6일 준결선 볼더링에서 44.2점을 받아 20명 가운데 13번째에 자리했다.

만약 리드에서 뒤집기에 성공해 상위 8명에 들 경우 서재현은 오는 10일 열리는 여자 결선에 진출하게 된다.

한국 역대 선수단의 여정도 시작된다. 한국 대표팀 중 가장 먼저 바벨을 드는 박주호(고양시청)는 2년 전 철추수술로 장애 5급 판정을 받았다.

놀라운 회복력으로 태극마크를 달고 자신의 첫 올림픽 출전을 확정된 박주호는 9일 오전 2시 30분 사우스 파리 아레나에서 역대 남자 73kg급 경기에 출전한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과정

- 일 시 : 2024. 9. 2(월) 오후7시
-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산수오거리-무등산방향 투리보석2층)
- 수강료 : 풍수+사주 = 20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 2024. 8. 26(월) 오후7시
-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직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010-2246-1508

분할합병공고

2024년 7월 31일 주식회사 명인이앤씨(강)과 주식회사 서용전기(유)는 각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강)의 재산(영업)의 일부(전기공사사업 부문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유)이 합병하고 (강)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8일

"강" 주식회사 명인이앤씨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길 159 (구산동)
대표이사 강원중

"유" 주식회사 서용전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평화길 232
대표이사 부창용

군산시 수송동 7층 매매

메디컬빌딩

840㎡ 바닥628㎡ 대형건물
약국, 의료기관 4개입주

월 3천4백만원
매가78억

은행 36억5천,보9억4천포함

인수가 32억

010-3646-8700